

5장

옅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믿음



제 5 장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믿음”

- 1 들으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 4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 6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 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 16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 18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IV-5. 부정한 이득과 재물의 오용에 대하여 5:1~6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본문은 부자에 대한 신랄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야고보는 부자들이 자신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그들에게 임한 고통의 타당성을 증거 하리라고 말한다. 사실 부자라고 무조건 저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부를 모으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수탈했다는 점에서 부자들에게 저주가 선언되고 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눅 6:24). 유대인 중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믿고 나왔으나 부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부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을 혹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시한다고 하기도 하나 이 사건은 부자들의 저주에 대한 부분적 성취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있을 환란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돈에 대한 사랑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을 도적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유행할 탐욕과 압박을 묘사한다. 야고보는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 5:1, 3~6).

…세상 풍습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민활한 간계(奸計)와 기만과 착취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동료에게 행한 모든 불의한 행위는 황금률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잘못된 당신의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과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든 기도(企圖)는 하늘 책에 사기로 기록된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과부와 고아를 압박하거나 나그네로 그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밤낮 수고하며 빈곤의 떡을 먹기를 원할 것이다. 사소한 일에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방벽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 더욱 큰 불의를 감행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준다. 사람은 다른 이에게 손실을 주어 자신의 이익을 얻은 바로 그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감각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값을 치르고 얻은 유익은 유익이 아니라 두려운 손실이 된다.” (선지651)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생산물로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루었다(눅 12:16~20). 이 “재물” 들은 자기만족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희생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 이 모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다(눅 12:21). 사용하지 않은 재물에 생긴 이 녹은 심판의 날에 “부자”에게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들의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 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기적으로 축재되었다. 그러므로 녹이 많이 슬었을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증거가 된다.

한편 “불” 은 최후의 심판에서 주어질 지옥 형벌을 의미하며 이 불은 재

물을 모은 것과 비례하여 모아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네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불을 간직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다.

“눅” 은 비유적으로 악한 자들이 하늘의 재물을 제쳐놓고 선택한 가치없는 보물들을 표상한다. 단지 “눅” 일 따름인 것들 모두는 마지막 날 “불” 로 태워질 것이다. 지옥불은 물질적인 재물을 얻는데 마음을 두었던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말세” 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너는 진노의 날에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두고 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롬 2:5과 비교된다.

“부자” 들은 물질적 부의 축적으로 그들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케” (눅 12:21) 만들어 주는 것들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각 사람은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그가 모아 놓은 것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마 16:27; 눅 6:35; 고전 3:8; 계 22:11).

“나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나는 이 무서운 말이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부한 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에게 기회들이 제공된다. 그러나, 그들은 사업의 필요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들의 세상 재물을 더욱 굳게 붙잡는다. …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셨다. 사업은 마쳐져 간다. 미구에 재물과 큰 농장과 가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재산이 필요없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보시면서 “들으라 부한 자

들이” 라고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부르셨지만, 그대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삼켜 버렸다.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대들 마음대로 하게 놔 두시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고 부르신다.

아, 나는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물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보았다. 나는 사업이 마쳐져 가고 진리가 강한 힘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이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받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대들의 재산은 필요 없다. 그대들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가난한 자들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그대들의 재물로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대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1증언174)

4. “보라 너희 발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러한 비참한 재난을 가져올 죄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한다. 이 사람들이 범한 죄는 탐욕의 죄이며 또 다른 죄는 억압의 죄이다. “부자” 들이 재물을 모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임금 지불에서 부정직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금지된다(신 24:14,15).

부자들이 “금” 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들을 멸망케 할 “불” 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위한 울부짖음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압제 받은 품꾼들은 언젠가 공의가 편만해질 것이며 그들이 견뎌온 잘못들이 바로잡힐 것임을 확신한

다(눅 16:19~25).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은 구약에서 “심판의 날”과 동의어이다(렘 12:3; 25:34). 결산의 날이 선하거나 악한 모든 자 앞에 다가온다. 자기 이기심을 마음에 가득 품은 삶은 도살되기 위해 살찌워지는 양의 모습과도 같다. “부자”들은 이 땅에 그들의 애정을 집중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애정을 둔다.

6.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기심이 가득한 압제자의 손은 무죄한 자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죽음을 가져온다. 학대 받은 의로운 자들의 증언이 심판의 날에 모든 압제자가 두려운 정죄를 받을 때에 일어날 것이다. 압제받는 의로운 자들은 이생에서 강포한 부자들을 대항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자 일어서는 때에만 공의를 보장 받을 것이다. 그러한 후에 그들의 주장은 옹호될 것이며 그들은 보상받을 것이며, 그들을 압제한 불경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V. 마지막 권면 5:7~20

1.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가 필요함 5:7~11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봄으로 영적으로 미끄러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시 73:2,3).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의 끊임없는 압제로 용기를 잃을 수도 있다(2:6; 5:6). 하지만 다가올 심판이 확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옹호 받을 것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의로운 자들이 옹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힘과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한다. 씨앗을 심은 후에 농부는 씨앗이 자라기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 특별히 두 비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 없이는 수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은 성지, 즉 남부 시리아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틴의 기후를 나타내는 말인데, 팔레스틴에서는 일 년에 두 번만 비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른 비(가을비)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파종이 끝난 후에 오는 비이고, 늦은 비(봄비)는 4월경에 오는 비로써 곡식이 영글 때 오는 비를 일컫는다. 이 두 가지 우기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강림’ 과 ‘말세에 임할 성령강림’ 을 표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농부가 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강림을 소망해야 한다.

열매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 하거나 불신하거나 낙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써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계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약 5: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계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실물 61p).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일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주님의 방법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영적인 추수를 완수하기 위한 그분의 지도하심에 기꺼이 순복해야 한다.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기를 요청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신다. 비록 예수께서는 아무도 그분의 재림과 “날과 시” 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분별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도록 장려하셨다(마 24:36).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할 것을 권면하셨고, 각 시대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강림이 그들의 시대에 가까우리라는 소망을 품어왔다.

*전설에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도구를 경매에 부친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모여들어 마귀의 무기들을 보았다. 경매품은 죄에 사용될 무기, 탐욕에 사용될 무기 등이 잘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도구가 있어 구매자의 눈길을 끌었다. 마귀는 이 비매품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다른 도구는 팔 수 있지만 이것만은 팔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담'인데 이 낙담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인격과 생활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주를 바라보며 낙담하지 말자.

그리고 7~8절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이해할 때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례자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머잖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

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간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 “이스라엘은 ...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 65:17; 히 10:35-37; 사 45:17).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고 그대의 믿음을 계속 증가시켜라. 이 신앙이 그대를 좁은 길 곧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구속 받은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내세, 넓고 무한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안내하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약 5:7, 8), (선지 732p).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압제하는 부자들의 잘못을 견디는데 인내하도록 권면한 후에(7절), 사도는 이제 서로를 향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다. 더 심각한 불의도 용감하게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종종 교회안의 훨씬 경미한 문제들은 참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형제들을 격려해야 한다. 한편 야고보는 여기서 강림의 임박성과 주를 만나기 위해 성품을 준비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을 시간이 없다.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 했다는 것은 곧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다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집권자들이나 부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여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일췌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견딘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은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용기를 가져다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가장 혹독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용납해야 한다. 선지자들의 고난의 본을 통해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인내한 본을 통해 우리도 인내하도록 격려 받는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큰 차이를 보여 주는데, 닭은 자기의 몸을 날개 속에 파묻지만, 독수리는 반대로 날개를 펴고 폭풍에 몸을 싣고 더 빨리 안전 지대로 날아가는 것이다. "뿔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독수리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시련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청중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야고보서 5장 10절)으로 보여 주셨다. ...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뿔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

하나님의 사자들의 역사에서 이런 성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고상하고 웅변가인 스테반이 산헤드린 회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복음 사업에는 전혀 손해가 없었다. 스테반의 얼굴을 영광으로 물들게 한 하늘의 빛과, 그가 죽으면서 드린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효는 곁에 선 완고한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과 같았다. 그리고 또, 뿔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다. 오랜 후에, 노령의 바울은 로마의 감방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15-18절). 복음이 바울의 수감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가이사사 공전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씩지 아니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의 씨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는 사단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다. 그분의 자녀들이 받는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산상보훈33)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계속 신실하면 하나님께 대한 나뉘지 않은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영생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주께서 주신 결말” 이란 옴이 환란 후에 받은 축복에 관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고통은 단순히 고통 그 자체로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고통 이후에 옴이 받았던 축복이 “결말” 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옴을 괴롭힌 사단의 시험들의 목적과 결과를 상고해야만 한다. 여호와께서는 시험받는 옴의 믿음이 빛을 발하여 옴이 진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옴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옴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옴이 그의 충성됨을 증명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배로 보상하셨다(옴 42:12,16).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인 각자에게 보상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끈기 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면하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옴의 경험을 통해 결말을 보는 인내를 배우도록 하자.

“그들에게는 초기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련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였을지라도 후에 가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주께서 나중에 어떻게 행하신 것” 을 보게 된다면, 그 시련이 저들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 며,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대쟁투 354p).

2. 적절한 행위가 언제나 필요함 5:12,13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맹세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짓맹세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울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트 11장에도 그릇된 맹세로 낭패를 당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전투에서 이기면 자기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맞는 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쓰디쓴 고통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예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바 있는데(마 5:33~37),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세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악용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맹세 그 자체는 이미 구약에서도 용인되었고 단지 거짓 맹세하는 것만 금하였을 뿐이었으나 후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맹세가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 한 그 맹세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함부로 맹세하였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등이 맹세의 보증으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다 후에 그 맹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허위를 위장하는 수단들이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거짓을 위장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사실처럼 내세우려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다.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는 소극적으로 맹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말하라는 의미이다. 사실 매사에 진실된 자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으나 매사에 부정직한 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된다.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그의 행동으로 진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사람은 맹세로 자기의 주장에 힘을 붙여 넣으려는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랍비는 선포하기를 “너희는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상상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Midrash Rabbah, on No. 30:2f, Soncino ed. 853,854).

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 50:15).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완전한 수단이 된다.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교인들이 평화스럽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잠 15:13; 행 27:22,25).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안위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와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줄 것이다.

3. 병든 자들을 돕는 일에 기도가 유효함 5:14~18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인간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건강을 회복케 하는 기적과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행 3:16; 막 16:17). 기름을 바르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봉사는 주의 뜻과 조화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온전하게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효과가 없게 된다(시 66:18). 그러므로 병든 교인은 그의 질병의 원인이 된 잘못된 습관을 포기하고 이후로는 건강 법칙에 조화되어 살고자 하는 진실한 목적과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8:26).

인생의 가장 필수적이고 값진 교훈들 중 어떤 것은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습득된다(히 2:10).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시련이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비록 그분이 고통을 야기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의료봉사 230). 따라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신뢰와 순종으로, 최선의 것을 아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 대한 거리낄 것 없는 확신을 가

지고 드러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적인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마 6:10; 의료봉사 229~231).

“기름을 바르며” : 유대 사회에서는 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신앙의 시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병자는 의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먼저 랍비를 찾아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다(막 6:13).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랍비 대신 교회 장로들을 찾거나 방문하게 하여 기도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 혹은 임종하는 자를 위한 교회의 마지막 예식으로 부르는 의식을 지지하고 있다. 1551년 트레نت 공의회 제 14차 회기에 야고보가 여기서 기름의 성례전적 효험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칼빈’ (Calvin)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카톨릭의 종부성사는 야고보의 의도를 무시하고 형식만 발달시킨 것으로 보고 배척한다.

본문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의 종속적인 어절로서 기도, 그 자체가 중시되는 것이지 의학적인 치료로서 기름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한 표현이다(마 6:8; 눅 11:9).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한 번의 만짐과 한마디의 말씀과 한번 쳐다봄으로써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신뢰하기를 것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것처럼 큰 희생을 하신 분보다 더 크게 신뢰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신다. 인간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도우

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 5:14, 15).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마음의 순결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들은 심령과 육체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5중언196)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부족은 구원에도 장애물이 되지만 치료에도 장애물이 된다(막 6:5).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간구한다(의료봉사 231).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두드러진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이다.

“구원하리니” : 신약에서는 신속하고 기적적인 건강회복의 사례를 기록한다(마 9:22; 막 6:56; 행 3:7). 하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모두가 다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후 12:7~19). 따라서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만일 주께서 그것이 그에게 최선의 것이라 여기신다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일이다.

시 103: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는 병의 근원이며 동시에 찌르는 가시이기도 하다. 만일 죄 사함을 받

으면, 그 공황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거나 혹 고통이 지속 된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병자 편에서 건강에 해롭고 져된 습관들을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는데도 육체적으로 그를 고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장려하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의료봉사 227).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든지 또는 영적인 법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 주어야 한다.

성경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 (약 5:16)라 하였다. 그러므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므로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후회하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는 무리 앞에서 고백하고, 개인에게 대하여 잘못된 것은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여 고쳐야 한다. ...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시정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지도 하심을 따라 고요한 믿음으로써 병자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되 이름까지 아시며, 또 지구 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써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위대하시므로 병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권장할 것이다” (복음 215).

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고백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만 하며(요일 1:9), 우리에게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에 대한 오직 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뿐이라고(딤후 2:5)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이시다(요일 2:1). 고백할 때는 깨끗한 양심으로 고해야 한다. 비밀리에 행한 잘못된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관련된 죄들은 그 해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또한 고백해야 한다. 병든 자가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바 된다. 기도는 재능, 지식, 지위, 재물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품성에 달려 있다.

사람은 모든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의인” 이다(시 66:18).

“역사하는 힘” 은 ‘목적을 성취할 힘이 있다’ , ‘강력하다’ 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 인내와 품성계발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거짓된 치료자들이 하는 일]

“사람들이 악령의 감화 아래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술을 행사하여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술(呪術)을 풀어서 병든 자들이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말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 왔다” (편지 259, 1903).

[하나님이 받으시는 웅변]

“기도할 때에 웅변적인 말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웅변은 도움을 꼭 받아야 되**

겠다고 느끼는 영혼의 열렬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힘써 일하신 것 같이 일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열렬히 기도할 것이다. “의인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흠정역)라고 하신다” (편지 121, 1901).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성정이 같은” (헬, 호모이오파세스, homoiopathes): ‘감정이 같은’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호모이오파세스’, 즉 같은 성정을 가진 동료라고 주장했다(행 14:15). 엘리야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또 때때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인생의 시련들로부터 면제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에 성공한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자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처럼 시험받으셨으며(히 4:15) “그분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게 했고 또 특권이 되게 하였다” (정로 94).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 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일곱 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불 같은 창으로부터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초기 7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 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다. 이는 길르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비가 아니왔” (약 5:17)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 (히 11:33, 34)였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믿음은 응답 받은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 15).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 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선지자와 왕 157p).

18.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한즉” 과 **“다시 기도한즉”** : 이 기도와 이전 기도 모두 심각한 우상숭배에서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간절한 염원으로 시작하였다.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자, 엘리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왕상 18:42~44). 그는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 백성들은 사랑했다.

“하늘이 비를 주고” : “큰 비” 로 기록되어 있다(왕상 18:45).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 함으로 “큰 비” 곧 늦은 비의 역사를 일으키자.

4.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권면 5:19,20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관심으로 권고와 교훈의 편지를 결론짓는다. 교인들은 교리적으로 오류를 받아들임으로 “미혹” 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원칙을 저버리고 쫓겨난 습관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들로 이끄는 많은 악한 충동에 미혹될 수 있다.

“돌아서게” : 오직 하나님께서만 돌아서게 하시며, 인간은 이 하늘 사업에서 그분의 도구들이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가장 효력 있는 논증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지닌 순결함과 화평함의 품성의 열매이다.

하늘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 한 순간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도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죄인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현세의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단 12:3).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길 것이다.

“죄를 덮을 것” (헬, 칼루토, kalupto): ‘숨기다’ , ‘가리다’ (시 32:1) 사람이 회심할 때 그의 죄들은 덮인다. 말하자면 “깊은 바다” 에 던져진다(미 7:19).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신약의 핵심기별-사람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회복시키는 것-로 결론짓는다.

*쥘리 물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물러는 다섯 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두 사람입니다. 물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 간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물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 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물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습니다. 물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물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나서 그 친구가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물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 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 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산상보훈 129p).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다. … 미구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대들의 시간은 영원히 지나갈 것이다. 그대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라. … 심판의 날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진다. 그들은 그들이 충실해지기를 거절하므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다. …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 초청은 끝났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렘 8:20)라는 통곡이 들린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운명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사망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호소가 쇄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일어나서 능력으로 웃을 입으라고 요구하신다. 불멸의 면류관은 획득해야 하고, 하늘나라는 얻어야 하고, 무지로 멸망해 가는 세상은 계몽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생활하는 바에 의해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강단에서 목사는 복음의 이론을 전하고, 실제적인 교회의 경건은 그 능력을 증명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커져갈 때,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선포에 따를 것이다. 하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주께서는 남녀들과, 물론 그분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기별자로 만드실 것이다. ... 온 하늘은, 외관상 불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종들이 그들의 구속주의 깃발 주위에 모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갈 때 새로운 정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된다. ... 자신의 무가치를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영혼은 외관상으로 무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겨내기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정복당하도록 허용하시는커녕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전쟁의 외침이 전선을 따라 들리고 있다. 모든 십자가의 군사는 자부심에서가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야 한다. 그대들의 사업, 나의 사업은 이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무덤에서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사업에 임할 것이다.” (7중언 15p).